

# 나눔+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2014 Summer vol.359 나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예제 36.26)



## +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 + Vision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사회복지 기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사회복지 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 SPECIAL THEME



- 04 카리타스, 이웃 속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실현해 갑니다
- 07 카리타스, 이웃과 함께**  
사회 속의 교회로써  
사회복지 공동선을 추구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자협의회
- 08 카리타스, 이웃을 만나다**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길음안나의 집

- 12 카리타스 특**  
김인권(요셉) 신부에게 듣는 카리타스 이야기
- 15 명화 속 카리타스**  
성령강림
- 16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배우는 카리타스**  
인간 존엄의 참된 진리
- 18 이슈 프리즘**  
2014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실과 대안을 논하다  
가톨릭 시설의 회계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 24 나눔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수유1동 성당 황봉주(요한) 사회사목 분과장

- 26 오늘은 어떤 일이**  
좋은 소식 & 뜻깊은 행사
- 28 카리타스와 친해지기**  
아름다운 재능 나눔으로  
카리타스를 실천하는 '올리브의 향기'  
후원 프로그램 '한가족장학회'
- 31 카리타스 가족을 소개합니다**
- 34 카리타스 소식**
- 37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 38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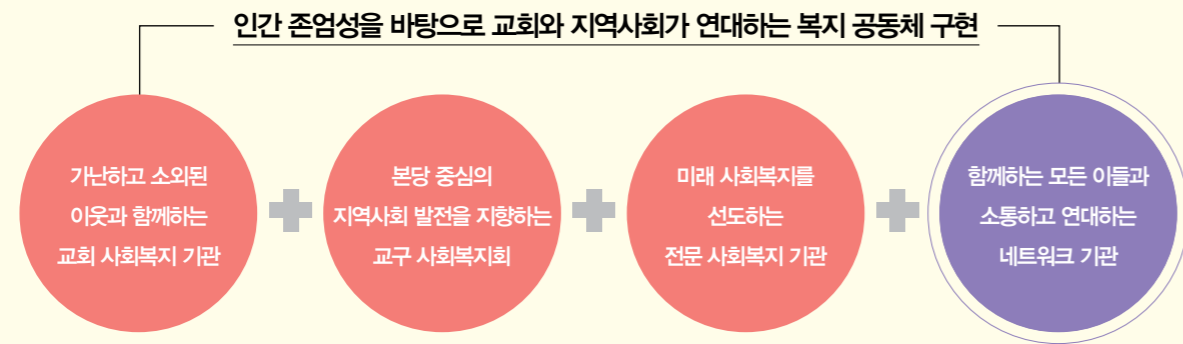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4층 자원개발팀 02-776-8810  
재무·행정팀 02-727-2253 사회복지팀 02-776-1314  
교육·홍보팀 02-727-2256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02-727-2248

2014 Summer <나눔+> 발행일 2014년 6월 24일 발행인 정성환 발행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담당 및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육·홍보팀 홍보담당 최은희 02-727-2256  
기획·디자인 (주)명화드림 02-2258-8445 사진 한정구 인쇄·제작 르베르쉴 02-548-890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나눔+>는 무료로 배포됩니다.  
<나눔+>는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caritasseoul.or.kr/bokji <나눔+>의 저작권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있습니다. Copyright©caritasseoul, all rights reserved

##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실현해 갑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진정한 나눔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적극적 연대활동과 이상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사회복지회의 팀별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 Vision



### 비전 4에 해당하는 2014년 사업소개

**복지 공동체가 꿈꾸는 카리타스를 위한 이상적 실현**  
카리타스 실천을 위한 비전 4에 따른 사회복지회 사업을 소개한다.

#### 사회복지팀

교회 사회복지 기관 및 종사자 간의 협력과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며,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 내외의 다양한 활동과 각 분야별협의회의 참여와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인 다양한 신분(신자, 종사자, 수도자 및 사제)의 구성원들 간의 이해, 조화, 협력을 통해 보다 민주적, 영성적 사회복지 실천을 지향합니다.

#### 재무·행정팀

올해 초 사회사목부가 사회사목국으로 승격되며 기존의 9개 위원회와 더불어 4개 위원회(경찰사목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이주사목위원회, 일반병원사목위원회)가 사회사목국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정보 교류와 연대활동을 도모함에 있어 본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교회 내 특수 사목단체로서의 공동체성 확립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분야별대표자협의회가 각 분야별협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목적사업 수행 등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서로 이해·소통·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속의 교회로서 그 목적인 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자원개발팀

본회 산하시설 모금 담당자들과의 연대모임을 통해 본회와 시설 간의 정보 공유를 도모합니다. 또한 권역별 모임을 통해 산하시설과의 연대사업 구상 및 진행, 산하시설 모금 담당자들 간의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이루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 간의 연대성을 강화합니다.

#### 교육·홍보팀

올 한 해 핵심 콘텐츠가 들어간 홈페이지를 중심에 두고, 이를 통해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교회 내, 타 종교, 시민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과 네트워크 참여를 활성화하여 종교 사회 복지 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톨릭사회복지 시설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자원봉사센터

세계 각 국 자원봉사 현장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기관과 자원봉사 관리자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연구합니다. 센터의 소식지 등을 전문봉사자들의 나눔으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신자들에게 센터를 알리고, 자원봉사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 잔치와 성지 순례 등의 가톨릭적 인정 보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2

- 1 신입 직원 교육
- 2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연수
- 3 자원봉사센터 나눔 잔치



3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주요 사책	중점 추진 사업		담당부서
교회 사회복지 기관 및 종사자 간의 협력과 전문적 역량 강화	추진방향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 내외의 다양한 협력 활동 참여 및 지원	사회복지팀
	세부사업	아동복지 외 분야별협의회 지원 사업(협의회 지원의 다양화, 공유사업 및 교육지원 등), 봉사 및 문화 복지단체 운영 지원, 상담·의료복지 협력체계 구축	
교회 사회복지 구성원 (신자, 종사자, 수도자 및 사제) 간의 이해와 협력 활성화	추진방향	교회 사회복지 실천 주체인 다양한 신분의 구성원들 간의 이해, 조화, 협력을 통해 보다 민주적, 영성적 사회복지 실천 지향	사회복지팀
	세부사업	분야별협의회 정기회의, 협의회 종사자 연수 지원	
소속감과 연대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추진방향	교구(법인)와 사설(종사자) 사이의 소속감 및 연대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계획 및 진행	교육·홍보팀
	세부사업	신입직원 교육, 신규 직영·수탁시설 교육, 시설장·부장 워크숍 및 연수, 등록단체장 교육	
온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 기능 강화	추진방향	핵심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저변 확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데이터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용	교육·홍보팀
	세부사업	홈페이지 운영, SNS 페이지 운영, 소개물 제작	
교회 내, 타종교, 시민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 활동	추진방향	교회 내외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과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교육·홍보팀
	세부사업	대외협력 사업, 기관 방문 홍보	
모금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나눔 및 연대성 강화	추진방향	모금 전문가 및 모금 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 교류 및 연대성 강화	자원개발팀
	세부사업	모금 자문단 운영, 직영·수탁시설 모금 네트워크	
후원자와의 소통과 소속감 고취	추진방향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후원자와의 소통구조 마련과 소속감 고취	자원개발팀
	세부사업	후원자의 날, 감사편지 및 안부전화	
교회 내 사회사목부 위원회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체성 확립	추진방향	교회 내 사회사목부 각 위원회 간의 월례회의 참여로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실무자 연수를 통하여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확립	재무·행정팀
	세부사업	사회사목부 실무자 월례회의, 실무자 연수	
교회 내 사회복지 기관 분야별 대표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체성 확립	추진방향	사회 속의 교회로서 교회 사회복지의 영성에 기반을 둔 정체성과 각 분야별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헌안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상이한 분야별협의회 이해와 소통을 도모,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제안 등을 통한 가톨릭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연대성 함양	재무·행정팀
	세부사업	분야별대표자협의회 월례회의, 실무자 연수	
자원봉사 유관단체와의 협력	추진방향	자원봉사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유대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참여 확대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	대외협력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소통 강화	추진방향	소속된 자원봉사자, 전문 재능봉사자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	소식지 '올리브의 향기' 발간, UN 선포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카리타스 자원봉사 나눔 잔치', 자원봉사자 1일 성지순례, 센터 홍보 및 제작물	

사회 속의 교회로써 사회복지 공동선을 추구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자협의회

우리 사회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 Mission, Vision,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로 분야별대표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여기 맞춤형 복지분야를 토대로 전문성과 특화성이 기반이 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자협의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 구성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산하 시설로 각종 사회복지분야를 총망라 해 25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56개 시설들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인가와 사회사목국 인가를 받은 수도회 운영시설을 포함하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직영, 수탁, 등록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대표자협의회 의 필요성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256개 시설들은 사회복지 전 분야(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를 총 망라 하고 있다. 사회복지 각 분야(영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 주거, 탈북민 등)들은 정부의 사업부서가 다르고, 복지사업법과 사업지침들이 서로 다른 분야들로 전문특화 되어 있기에 본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침들, 전문성과 특화성을 기반으로 13개 사회복지 분야를 구분하여 범주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협의회, 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청소년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협의회, 지적장애인시설협의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협의회’, 노숙인을 위한 ‘노숙인복지협의회’, 노인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 노인복지협의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등 12개 분야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 밖에도 상담복지, 의료복지 등을 기타로 분류하여 총 13개 분야별협의회를 두고 각 분야별로 사업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증대, 정책을 건의하는 등 특화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야별협의회는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과 Mission, Vision, 핵심가치들을 펼쳐 나가기 힘들었고, 또한 한 분야에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복지 실천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에 역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통감하여 2001년 사회복지 각 분야별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연대성과 보조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공동선을 이루고자 분야별대표자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분야별대표자협의회 의 목적과 사업

분야별대표자협의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분야별협의회가 계획한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각 분야별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제안을 통하여 사회 속의 교회로써 공동선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대표자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을 이루고자 “본 협의회의 승인된 사업, 사회복지 각 분야별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하며, 본 협의회 소속 시설·단체 종사자, 이용자들의 인권, 복지, 재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 길음안나의집

유난히도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5월 마지막 목요일, 성북구 길음로의 마지막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성가소비녀회 길음안나의집에 다다랐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평온한 외관 분위기와는 다르게 앞치마를 두른 채 바빠 움직이는 수녀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찾아오는 길이 어렵지는 않았느냐며 잡아주는 두 손에서 왠지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의 길

“고 성재덕 신부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이었어요. 다른 사람 집에서 빨래를 해서 식량을 얻어오면 꼭 가난한 사람을 모셔오라고 하셨죠. 우리는 도토리 죽을 먹더라도 그분들은 쌀밥을 드시게 하셨어요. 그만큼 가난한 분들을 우선으로 모시는 게 철칙이었으니 까요. 그렇게 의료 사도직으로 시작해 양로원, 고아원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인터뷰를 시작하자 원장 수녀는 잠시 성재덕 신부를 회상했다. 성북구 길음로에 위치한 길음안나의집은 지난 1943년 12월 25일, 고 성재덕 베드로 신부가 설립하고 성가소비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 요양원이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성 신부의 설립정신을 실천해 온 길음안나의집은 무료양로원에서 지난 2010년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여 건물을 신축했고,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이곳은 많은 어르신들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등급이 3등급이면 입소가 가능하고 올 7월부터는 5등급부터 입소가 가능하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든 것에 있어 절대 소홀함은 없다. 얼마 전 기관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는 영광을 얻었는데 실제로 길음안나의집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개별 멘토링 등 매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이 두드러져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 따뜻한 풍경 속에서 인생을 채색하는 사람들

길음안나의집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데이케어' 프로그램인데, 이곳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가 진행 중인 분들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회상요법은 지속적으로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거나, 기능 회복을 위한 손가락 운동을 한다거나,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통해 사회성이 무뎠던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다. 처음 입소했을 때 어두운 표정과 적은 말수의 어르신들이 서서히 밝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일은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수녀의 보람이자 감동이다. 마침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미술치료가 한창이다. 행여 방해될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



선 곳에서는 저마다 열심히 미술 활동을 하고 계셨다. 흰 도화지에 ‘풍선을 들고 있는 피에로와 재주 부리는 코끼리’를 채색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화지 속 피에로와 코끼리는 저마다 느낌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지만, 표정만은 하나같이 행복하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재미있게 보았던 서커스단의 추억 속으로, 또 누군가는 자신의 딸아이에게 힘껏 붙어 주었던 알록달록한 풍선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깔깔깔’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던 연약한 모습의 할머니도, 일찌감치 그림을 완성하곤 옆 사람을 참견하다 친구에게 혼이 난 할아버지도, 저마다 다른 기억 속을 걷고 있을 테지만 그들은 이미 인생의 화가였으며 예술가였으리라.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을 집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자제분께 작품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정말 우리 엄마가 그린 게 맞느냐며 좋아하세요.” 지도 수녀는 이런 작은 활동들이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행복한 기운이 감도는 건물 끝자락인 옥상에 다다르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다는 상추, 딸기, 방울토마토들이 각기의 색깔을 뽐내듯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길음안나의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예치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때때로 자신이 직접 키운 상추를 수확하고 탁 트인 야외 테라스에서 점심 식사까지 즐기신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곱게 적어놓은 화분 사이로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고 있다.

#### 카리타스 실천, 가까운 이곳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갈수록 노인들의 전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눔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하다.

“종사자와 수녀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눔의 손길은 너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주는 손길, 말벗이 되어주는 친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봉사 등 어떤 봉사든 절실하고 귀하죠. 저희 봉사 프로그램 중에 1:1 멘토링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르신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 봉사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언어적 퇴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마음과 정성이 어르신들께는 큰 행복이자 기쁨이 된답니다.”

봉사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작은 봉사라도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비로소 나눔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에 대한 여운이 오래 남아 한 번의 봉사가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봉사가 장기화된다고 원장 수녀는 강조한다. 봉사는 결코 일방향의 희생이 아닌 쌍방향의 행복이라는 것.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많은 봉사자와 수녀들이 하루하루 느끼는 깨달음이다.

“어르신들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많은 봉사자가 꾸준한 봉사를 결심하게 되죠. 특히 이곳은 어르신들끼리 모여 생활하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오는 것에 큰 반가움을 느끼세요. 최근 세대통합이라고 해서 영훈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 20~30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어르신들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미니올림픽을 한다거나, 어깨를 주물러드린다거나, 재롱을 피우는 것이 전부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보람이, 어르신들께는 삶의 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대통합 카리타스 실천이 아닐까요?”

카리타스 실천의 답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원장 수녀의 간단하지만 명쾌한 해답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평안함과 숙연함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을 것만 같은 하루.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는 이웃을 돕는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길음안나의집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껏 가볍다.✿



#### Mini Interview

##### 박 영 란 (암브로시오) 원장 수녀

길음안나의집에서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깊은 굴곡들을 지나 이 보금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이 당신의 인자하신 얼굴을 뵈옵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80평생, 90평생 각자 깊은 굴곡들을 지나오셨죠. 한때는 한 부모의 사랑스러운 자녀였다가, 한 가정의 아내 혹은 남편이었다가, 한 자녀의 부모였다가, 마지막에는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떠나고 혼자가 되신 어르신들이 바로 이곳에서 제3의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분들의 자녀이자, 가족이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앞으로 길음안나의집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노인전문 요양원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모실 것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김인권(요셉) 신부에게 듣는 카리타스 이야기

## 예수 성심의 신비 안에서 발견하는 카리타스 정신

### 카리타스talk 카톡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예제 36,26)



“..... 시험에 붙은 것은 기회지만 떨어진 것 또한 기회다.  
승진도 기회지만 유급도 기회다.  
돈이 많은 것도 기회지만 돈이 없는 것도 기회다.  
세상 모든 것이 기회다.”

이 글은 원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계발서와 잡지 혹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고 인용되며 회자되는 좋은 글인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금, 문득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위 글에 머물다 보면 그 핵심은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 혹은 ‘사고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정 흐르는 대로, 익숙하게 생각하던 대로가 아닌 보다 선하고, 바르며,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속뜻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 인간을 향한 참 사랑, 예수 성심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 있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제정하여, 특별히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축일을 성대히 기념하고 성시간과



기도회 등의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성심의 신비를 묵상토록 우리들을 이끍니다.

이는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인간적이며 신적인 사랑을 상징화한 예수님의 마음, 곧 성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특별한 목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자신의 불안정한 내적 상태로 인해 시시각각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많은 이가 알고 있듯 관계 안에서 서로의 내적 상태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이따금 표정과 말, 행동에서 숨길 수 없는 이면의 감정과 마음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마음이 되기 위해, 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확인

하게 되는 마음이 아닌 보다 더 큰 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큰 기쁨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하여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의인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듯(시편 37,31)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 낮추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인간을 위한 숭고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카리타스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삶이 매 순간 힘들고 좋게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여 모두가 기쁜 삶을 얻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선을 향한 지극한 갈망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 모두가 기쁠 수 있는 마음이어야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카리타스의 정신인 사랑을 나누려는 강렬한 열망이 미약하다면, 이 화창한 예수성심성월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주시길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청(복음의 기쁨 264항) 해야겠습니다.✿



##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사랑의 원천 ‘성령강림’

성령강림 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두 모인 곳에 성령께서 불꽃 모양으로 내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령강림이 갖는 의미는 성령의 기적과 친교라는 측면에서 가톨릭 교회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여기 티치아노 베셀리오의 작품을 통해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성령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 성령강림 [Pentecost]

티치아노 베셀리오(Tiziano Vecellio)

티치아노 베셀리오(1488~1576)는 베네치아 화파 최대의 거장으로 16세기 이탈리아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화가다. 그는 초상화에서 종교화까지 넘나드는 다재로우면서도 거친 필치의 불타는 듯 효과를 나타내는 색채의 미술사이기도 했다.

티치아노의 [성령강림]은 로마식 궁륭(궁전)을 배경으로, 성령강림의 드라마틱한 순간을 제자들의 제스처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한 가운데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중앙에 앉아 있는 여인은 성모 마리아이며, 뒤에 서 있는 두 여인은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인들로 추측된다.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불꽃 모양의 혀들은 비둘기에서 나오는 하얀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 새삼 우리 안에 늘 현존하시는 성령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성경 속으로  
[사도행전 제2장 1~4절]

- 1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 2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 3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인간 존엄의 참된 질리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도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이다. 하느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삶의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김수환 추기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자.



## 인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반복하는 인생의 길. 그렇다면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인간은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결국 해답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이 존엄성의 근거가 내가 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이웃을 형제, 자매처럼 인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루카10,27) 결국, 참된 삶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내가 하느님과 이웃을 더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야 합니다. 숭고한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참된 신앙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나는 너희 모두의 죄를, 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한다. 난 이렇게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바쳤다. 너희도 서로 가진 것을 내놓고 서로 나누어라. 이것이 네 계명이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 인간존중, 그 숭고한 가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관 그것은 바로 인간존중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꼽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헌법에서 제외한다면 헌법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양새로 생겼든, 얼마나 많은 지식과 재물을 가졌든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모두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권력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지 자유, 생존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이 왜 이렇게 존엄한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불가침의 기본 권리가 과연 ‘

어디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천부적 기본 인권. 이 말은 곧 하느님이 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손수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서는 과연 인간이 왜 존엄한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영상어록 '사랑' 중에서



온라인에서 카리타스의 향기를 함께 나누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전하는 카리타스 어록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온라인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aritasseoul](http://www.facebook.com/caritasseoul) ● 트위터 @caritasseoul ●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http://www.caritasseoul.or.kr/bokji)

## 2014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현실과 대안을 논하다



2014년 3월 27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등록단체 단체장들이 가톨릭회관으로 모여들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등록단체장 교육의 일환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편안하고 친숙한 화법으로 2014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풀어줄 문진영(마르코) 교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들의 눈빛이 꽤나 진지하다.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요즘, 문진영 교수가 들려주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복지국가의 이중과제

복지국가로서의 우리나라는 현재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경제가 21세기형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20세기 중후반기 '오래된 위험에 따른 오래된 복지(old risks, old welfare)'와 21세기형 '새로운 위험에 따른 새로운 복지(new risks, new welfare)'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꽤나 까다로운 이중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 먼저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자.

급격하게 확산된 세계화, 제조업에서 정보기술로 넘어가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동시장의 유연화, 저성장, 노동운동의 약화,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소들은 '새로운 위험' 배경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가져온 위험 요소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등장했다.

일과 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돌봄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또 중고령,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가 증가하고 비정규 근로자의 양산과 근로빈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인구 또한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를 살펴보면 2003년 대비 2010년도에는 빈곤층도 중하층도 상류층도 모두 늘어났으나 중간층만이 줄어든 수치를 볼 수 있다. 이는 국민경제 불안의 가장 강력한 경고신호로써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2년 464조

7000억에서 2011년 912조 9000억으로 기하급수적인 추세로 늘어났는데 결국 이 부채들이 중산층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셈이다.

###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이쯤해서 우리가 아닌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을 살펴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국가들이 2010년 29.4%에 달하는 사회보장지출을 했고 동유럽의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 등도 21.5%의 지출을 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9.2%로 OECD 평균인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OECD 국가의 1인당 공적 사회보장 지출 역시 OECD의 평균 지출 수준은 5927.3\$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은 1482.4\$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복지 실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중 국민연금은 빈곤과 노령, 고용보험은 실업, 건강보험은 질병,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시행중이다. 그러





나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고된다. 우선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빈곤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통계가 나온다. OECD 평균 빈곤율 감소가 149.1%. 멕시코의 빈곤율 감소가 14.1%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빈곤 개선율은 13.9%에 불과하다. 소득 분포 개선을 또한 한 자리 수에 그쳐 두 자릿 수를 기록하는 다른 OECD 국가들과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은 무엇일까?

우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세 모녀 자살사건을 살펴보자. 빈곤을 못 이기고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세 모녀를 보면서 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들여다 보면 세 모녀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무함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첫 번째 과제가 부정수급자 근절이 아니라 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우리 복지정책의 방향성 확립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어디로 가야 할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2012년 대선공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복지국가의 전면적인 부상이었으나 생산적인 논쟁 없이 그저 평면적인 복지공약을 관습적으로 발표한 수준에 머물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양당의 복지공약은 첫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기반이 박약하였고(예로 공공성의 문제), 둘째, 현실세계에서 정책으로 현재화시키기 위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의 성격,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으며, 셋째, 공약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공약 간의 정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갈 길이 멀다고 해서 가야 하는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룬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로서 복지제도 또한 그에 걸맞은 방향성을 확립해 나간다면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지도 원리로서 공공성 확립이 중요하다.

둘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 개혁과 더불어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GDP 대비 일정 수준을 목표(예를 들면 2030년 20~25%)로 하는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가진 전달체계가 튼튼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강, 요양,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민간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복지의 확대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이중 과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최저임금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트릴레마(일자리 증가, 소득의 평등, 재정건전성) 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정책 지향은 정부 부채에 일정 정도의 여유 및 조세수입 증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의 평등과 일자리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하며 고용과 복지의 통합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소득의 평등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노인 빈곤율의 경감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CPO(Context-Policy-Outcome) 모델에 입각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현장에서 뭘 등록단체장들에 대한 기대

문진영 교수는 위 요소들을 갖추고 정진한다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도 최소한의 인격적 존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문명사회를 이룩할 수 있음을 역설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담담한 듯 열정적인 긴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온다. 문 교수의 강의를 진행될수록 우리가 처한 현실에 착잡함과 희망이 엇갈리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참석자들 모두 한국복지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방향성을 알기 쉽게 짚어준 정성에 깊은 감사를 표한 것이다.

“정부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가 해야 할 몫이나 그것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요. 현장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권리를 강화하고 인지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모이신 단체장 분들께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현장에 실제로 접목하실 수 있다면 오늘 강의가 큰 보람으로 느껴질 듯합니다.”

참석자에 대한 문진영 교수의 바람처럼 오늘 강의로 인해 한 발짝 더,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과 가까워지길 소망해본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유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제1차 사회복지 이슈·테마 특강-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열렸다. 재정 투명성을 위해 회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수인 요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인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의 이야기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 부당수급 근절은 투명한 가톨릭 시설의 회계를 위한 우선 과제

최근 들어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복지에 산의 투명성이다. 예산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해마다 부당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에서 야기됐다. 먼저 해결책에 대한 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은 복지계의 부당 수급자 차단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덟 개 부처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 12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정부는 전 방위적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당수급 적발 시 환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률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부당수급을 청구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고의성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다

면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처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특히 임금체계에 관한 시스템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인으로써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의 이러한 지표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의 진정한 카리타스로의 회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적 책임이나 책무성은 더욱 강화되고 투명성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회칙을 통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공식적인 행사에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다. 이 회칙은 '왜 교회와 국가가 연계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다른 모든 단체와 연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국가는 운영과 정에서 세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세금으로 인한 자금을 갖게 된다. 한편 교회는 성도라는 인적자원과 더불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 국가에 체계와 돈이 있다면 교회에는 그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주는 인적자원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 둘을 적절히 결합해 운영할 때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올해 8월,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란 책에는 교회가 정직한 모습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모습 즉 카리타스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정성환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려 이렇게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한다 해도, 우리의 행실이 옳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왜곡하여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카리타스를 실천하려 해도 그 진심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왜곡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바꾸고 변화해나가는 것, 그것의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냉철하게 핵심을 찌르는 정성환 신부의 특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모든 가톨릭 시설 사업이 투명한 카리타스 실천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수유1동 성당 황봉주(요한) 사회사목 분과장

# 이웃과의 소통과 공존,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다

바쁜 일상 속 카리타스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참다운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수유1동 성당.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황봉주 사회사목 분과장이 소개하는 따뜻한 사회사목활동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나누며, 사랑하며 더 깊은 행복 속으로

매주 월, 수, 금이면 수유1동 성당과 6지구 내 다른 성당은 베드로의집에서 무료급식 후 설거지 봉사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엔 베드로의집이 생긴 이래 10년 만에 처음으로 80여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아직도 그날의 행복한 기억 때문인지 수유1동 성당의 황봉주 사회사목 분과장과 베드로의집 예레미야 수녀는 연신 환한 웃음을 짓는다.

“어르신들이 전날 저녁부터 잠을 설치셨대요. 꼭 초등학교 때, 소풍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대부분 하루 일을 접고 야유회를 가야 하니 부담도 컸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다녀오고 나선 저희를 고마운 사람, 서로 추억을 공유한 사람으로 생각하나 봐요. 이제는 살갑게 다가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수유1동 성당과 6지구에 감사드려요.”



수녀는 이번 야유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한층 밝아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만 같으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형편상 풍요롭게 헤드릴 순 없지만 되도록 조미료를 쓰지 않고 음식을 준비한다며,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말에 다시금 나눔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 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랑하라

수유1동 성당의 사회사목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중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종교 연합바자회는 단연 가장 큰 나눔으로 들 수 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종교 연합바자회란 서로 다른 세 종교인 수유1동 성당, 송암교회, 화계사가 뜻을 합쳐 개최하는 바자회를 뜻하는데, 매년 10월 둘째 주, 한신대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올해로 벌써 15주년을 맞이한다. 바자회에서 물품을 팔아 얻은 수익금 전액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쓰인다니 이곳이야말로 참된 나눔의

### 수유1동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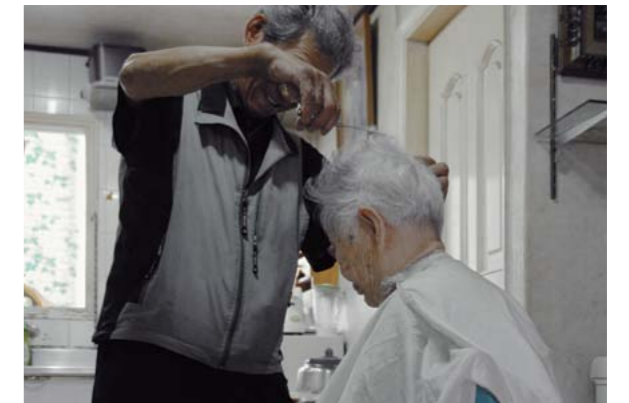
수유1동 성당(주보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은 1983년 9월 1일 설립(1983년 8월 16일 교구 승인)되었고, 2013년에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5대 주임신부인 이종남 라이문도 신부가 부임한 이듬해인 2000년 11월 제1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종교 연합바자회가 시작된 이래, 올해로 15번째 이어오고 있다.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북구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수유1동 성당에서는 그런 어르신들 댁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를 하거나 간호사를 대동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또 편찮은 어르신들은 병원으로 바로 연계하는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법률자문을 돕고 계신 자원봉사자 분도 계속해서 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도 해드린다고 한다.

봉사를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바빠 흘러간다는 황봉주 사회사목 분과장. 벌써 17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그는 겸손의 말도 빼놓지 않는다.

“물론 저희 지도신부님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이 없었다면 이렇게 원활한 나눔이 불가능했었을 겁니다(지도신부님을 걸어 다니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신다). 나눔이라는 건 절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나눔에 참여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황봉주 사회사목 분과장의 나눔 철학에서 또 한번 인생을 배운다. 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리스도의 진리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나눔 문화가 수유1동 성당을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당신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소식

# 오늘은 어떤 일이

###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 문경수 관장, 정진모 관장의 정년퇴임식

지난 17일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문경수 관장의 퇴임식이, 18일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정진모 관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임식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인 정성환 신부의 집전 퇴임 미사를 시작으로 영상 나눔, 직원들의 공연, 송별사와 퇴임사 낭독, 감사패 증정 및 소소한 이벤트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생 지역사회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에 헌신하신 두 관장의 가르침과 나눔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립능력 향상,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한우리 복지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 홈페이지: [www.sdsenior.or.kr](http://www.sdsenior.or.kr) • 문의: 02) 2298-5117~21
- 홈페이지: [www.shc.or.kr](http://www.shc.or.kr) • 문의: 02) 2055-0909



### <꿈나무마을>

####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 꿈나무 여행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에서는 매월 한화건설과 함께하는 '건축 꿈나무 여행'이 진행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면을 보면서 실제 건축 과정과 동일한 설계를 해보는 건축 놀이는 건설사의 특성을 살린 나눔으로, 아이들이 건축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한양대 건축학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재잘재잘 즐거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나눔과 소통들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윤리적 책임과 정의를 배우고, 학습으로 지식과 지혜를 개발하며, 운동으로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갖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홈페이지: [www.dreamtreevillage.com](http://www.dreamtreevillage.com) • 문의: 02) 351-2000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의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단체, 가족들과 함께하는 좋은 소식과 행사를 소개합니다.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코웨이 디자인연구소 직원들의 사랑가득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16일 (주)코웨이 디자인연구소로부터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후원금 100만 원은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필요한 학용품 등의 물품 지원과 가족전문상담센터의 치료도구 구매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200만 원의 후원금은 복지관 무료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코웨이 직원들은 후원금 전달에 이어 복지관 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주셨는데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던 3층 강당 앞이 생기 넘치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마을 신월동을 만들고자 지역주민들과 사귄다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han-bit.or.kr](http://www.han-bit.or.kr) • 문의: 02) 2690-8762~4



### <시립 평화로운집>

#### 수방사 방패나눔 봉사단의 아름다운 동행

수방사 방패나눔 봉사단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평화로운집에 꼭 필요한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강당에 빔 프로젝터와 음향기기 설치, 덩굴 제거, 기관 차량 세차, 바자회 물품 정리 등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꾸준히 봉사에 동참 해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립 평화로운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집처럼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국 카리타스의 수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yeonghwa.or.kr](http://www.pyeonghwa.or.kr) • 문의: 02) 3156-6500



# 아름다운 재능 나눔으로 카리타스를 실천하는 ‘올리브의 향기’

☞ 봉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소식지 편집 봉사단

‘올리브의 향기’.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는 향기로운 이름이다. 지금, 그 향기를 따라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올리브의 향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올리브의 향기’ 편집 봉사단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봉사단이다. 홍보나 신문 잡지 분야에서 일을 하다 은퇴하신 분, 전업주부, 직장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9명의 편집위원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취재 및 원고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올리브의 향기’는 부활, 성탄 시기에 맞춰 발행되는데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소개하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감사하며 격려하는 신부님 메시지, 기획 주제와 관

련한 시설 탐방, 센터 동정과 뉴스를 심는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적인 기능보다는 복음적인 기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봉사자의 사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발간된 소식지는 8,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센터와 봉사자 간의 중추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아직도 봉사가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교육과 더불어 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능 나눔’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https://www.esccv.or.kr Tel. 02)727-2235, 2248



## Mini Interview

올리브의 향기  
편집위원 **한연재** (안나)

**Q** ‘올리브의 향기’가 14호까지 발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A** 봉사라고는 하지만 정신적인 만족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봉사자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기관 소식지에 심미적 향상을 주고 적게나마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성취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Q** 기획에서부터 취재, 원고 작성, 디자인 등 소식지 발간까지 모든 과정을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하고 계신데, 혹시 일반인들도 재능 나눔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이제 11월에 발행될 15호부터 4쪽을 증면하여 봉사자들의 활동 소식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라면 자신의 활동 소식을 원고로 투고하셔도 좋고 언론이나 출판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센터로 연락하셔서 다음 모임 때 나오시면 될 듯합니다.

**Q** 향후 ‘올리브의 향기’가 카리타스 실천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 증면이 되는 만큼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원봉사를 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혹시 ‘올리브의 향기’를 맡게 되었을 때는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타올라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기쁨을 서둘러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랍니다.

☞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한가족 장학회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한가족 장학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작은 나눔으로 우리 학생들이 큰 사랑을 머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해보자.

한가족  
장학회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들이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회입니다. 개인이나 일부 단체의 거액 기부로 이루어지는 장학회와는 달리, 진정한 형제애와 공동체 실현을 실천하는 이웃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한가족 장학회는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많은 후원자분들 덕분에 고등학생 101명에게 분기별로 15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포기의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우리의 나눔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후원 문의 02)727-2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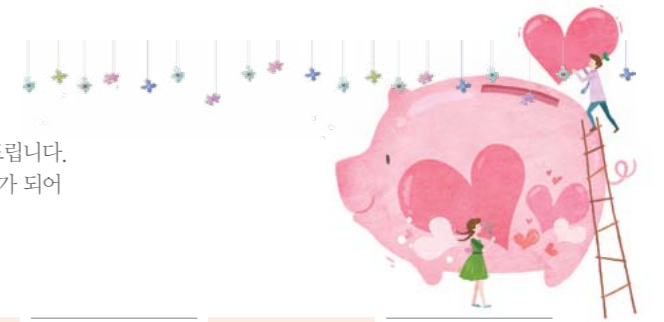


카툰. 안홍준

## 카리타스 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과 물품 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 카리타스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내린 사랑의 나무가 되어 이 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희망의 열매로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나연(이희원 그레고리오)	김남용	김수경	김재희	김한겸	노주영
곽정숙	김남효	김수덕	김정숙	김한식	노현아
박창	김노은	김수연	김정남	김현정	노혜경
구강희	김대운	김수정	김정민	김현미	노혜원
문문숙	김덕산	김수현	김정미	김현성	단혜연
구미희	김덕선	김수현(김효경)	김정수	김현성	당효준
김귀숙(김민진)	구백서	김수심	김정숙	김현숙	대기방
구선영	김도경	김순이	김정숙(김정은 데레사)	김현아	대기주어탕
구은소	김도균	김순자	김정아	김현진	도미영
구은정	김도연	김숙국	김정연	김형국	도재민
구은화	김도의	김승배(신애숙 로사리아)	김정옥	김형남	도호경
구정연	김도환	김승호	김정원	김형숙	동명모바일
구희진(조정자)	김동만	김시욱	김정은	김형준	두끼네  부대찌개
권구종	김동우	김애경	김정임	김혜경	두부마을
권미영	김리나	김여정	김정자	김혜리(김재민)	두에은
권미자	김말이	김연범	김정주	김혜영	두지은
권병길	김명년(김남수 엘리자베스)	김연이	김정현	김혜원	라우영
권병란	김명란	김연주	김정혜	김혜진	롯데마트
권병아	김병식	김연중	김정화	김효영	류기연
권성경	김병주	김영경	김정환	김홍승	류명숙
권세희	김문자	김영란	김정희	김화리	류무선
권소현	김미경	김영률(김태윤 루치오)	김제기	김화순(최대영 비오)	류주희
권수영	김미연	김영숙	김조자	김화자	미금란
권수정	김미옥	김영순	김종규	김화윤(심월자)	마춘기
권영민	김미용	김영옥	김종수	김효경	명동주
권영선	김미정(김관태)	김영웅	김종순	김효숙	문경수
권영조	김미현	김영은	김종애	김효순	문명정
권영희	김미혜	김영임	김종완	김효진	문병휘
권오솔	김민선	김영자	김종희	김홍준	문복순
권용수	김민정	김영주	김주리	김희경	문상숙
권윤수	김보현	김영희	김주순	김희숙	문성혜
권윤희	김봉기	김예림	김주철	김희순	문영미
권장수	김봉재	김예진	김준기	김희영	문영신
권정숙(베로니카)	김삼미	김옥임	김지니	김희정	문영주(문영목)
권현심	김삼민	김용일	김지수	김희정(이효진 바오로)	문정원(문지나)
권태근	김상숙	김용태	김지애	김희진	문정윤
강해경(이동준)	김상훈	김용태(안은영 레지나)	김지영(임준형)	꽃가스	문홍숙
강혜선	김채별	김유연	김지우	나민규	미오미장
경다히	김석구	김유현	김지현	나소민	민경숙
고경숙	그랑데뷰	김윤수	김지혜	나이스파엔아이(주)	민기준
고도영	금정란(안정우 닷)	김윤정	김진란	나홍숙	민영석
고명선(배준원)	기문상	김윤주	김진소	나지영	민병식
고병섭	기세용	김윤진	김진영	나형주	민세진
고송희	갈수현	김윤희	김진우	남다현	민시원
고수이	갈산자	김은록(최성환)	김진택	남명희	민윤봉
고승환	김경	김은총	김진택(김하늘)	남발채	민혜경
고영길	김경수	김은자	김진택(송행숙)	남상범	박강준
고영주	김선창	김은정	김진호	남상범(남민우)	박건호
고용임	김경순	김은현	김진홍	남상범(남은혜)	박경문
고원실	김경신	김용태	김철순	남상범(박인숙)	박경수
고윤애	김경우	김인경	김청	남원추어탕	박경희
고은경	김광수	김민국	김청나	남은순(이권의 반달레오)	박광원
고재용	김광순	김민수	김태백	남인예	박금선
고창숙	김광재	김인숙	김태연	남재순	박금자
고혜숙	김광희	김은연	김태은	노경선	박나래
고혜향	김국원	김성윤	김인희	노경총	박나정
고효남	김규준	김성임	김자	노동식	박덕순(박희정)
공패리네당구클럽	김기수	김성자	김재범	노연숙	박동수
공현정	김기식	김성호	김재영	노영철(김애옥 제노베파)	박동욱
곽나연(곽유진 미카엘라)	김길용	김세진	김재정	노원수	박동진
곽선영	김선영	김소영	김재준	노인숙	박동진



박마리아	박찬석	석병남	심규태	오서운	윤옥이	이병선
박마리아(자동환)	박진조	석정광	심동훈	오세준	윤용섭	이상근
박명순	박찬희	석해정	심소석	오수석	윤정익	이상림(전대훈)
박문주	박창엽	선덕남	심순복	오숙자	윤종구	이상웅
박미경	박철환	선마동	심순섭	오연숙	윤종호	이상원
박미숙	박현경	선현경	심영섭	오윤선	윤지희	이상직
박민철	박춘환	선화정	심재은(이승옥 요한)	오인화	윤태영	이상철
박병옥	박춘희	성건해	심재형	오재숙	윤하정	이상협
박보나	박태현	성경순	심지원	오주경	심지희	이서희
박복래	박학봉	성선종	심현숙	오지선	윤현숙	이색(이원준 라파엘)
박비아	박한순(임병모 토마스)	성양자	심해자	오지영	윤혜련	이석우
박해숙	박우연	성우연	아모레퍼시픽	오형수	윤해영	이석훈(이우정 벨라벳다)
박상경	박행자	성은정	안국진	오형자	윤혜정	이산아
박상균	박현정	성정희	안덕인	오혜선(주승택 바드스리모)	윤화숙(최덕준)	이선영
박상문	박해숙(권기영)	성진영	오혜정		윤화영	이선옥
박상분	박해신	성진희(방정홍)	안상현	오해진	은영기	이선희
박상희	박해영	성필란	안성식	오혜영	은택수	이성근
박서혜	박홍규	세양수산	안성수	온경주	이가화	이성명
박석근	박홍달	손경란	안성진	왕정환	이갑동	이성원
박선아	박화영	손경진	안소정	우종건	이갑중	이성훈
박선영	반상현	손금자	안수연	원명수	이강열	이세인
박선희	박재식	손말남	안수정	원순희	이강표	이세진
박성수	반포마차	손미애	안순옥	원신연	이경남	이소연
박성희	밝은아침의원	손승희	안순태	원은숙	이경숙	이소영
박소연	방성요	손인선	안연숙	원종숙	이경순	이승연
박소영	방원빈	손지원	안영숙	원혜성	이경옥	이수길
박소희	방지영	손철	안윤주	원화준(남기현)	이경은	이수연
박수남	방홍엽	손한중	안인숙	위광희	이경자	이수진
박수자	방효분	송광호	안정란(차광옥)	유경숙	이경자(주수도 베드로)	이수현
박수희	배경희	송기창	안정희	유경진	이광철	이숙아(임영기 라파엘)
박숙자	배기원	송미용	안종원	유기열	이경해(김승수)	이종진
박순옥(임종명)	배상옥	송수민	안종원	유기열	이경호	이순금
박순자	배성일	송수인	안종원	유기열	이경화	이순희
박시범	배숙현	송수인	안종원	유기열	이경희	이소복
박시우	배윤주	송순자	안종원	유기열	이계균	이순임
박시하	배정숙	송영옥	안종원	유기열	이계숙	이순자
박신자(이영찬)	배진	송원철	안종원(한정우 인토니오)	유상열	이계현	이순주
박연희	백선화	송은경	안종원	유선근	이교운	이순희
박영순	백성신	송은선	안종원	유선근	이광자	이승현
박영애	백승민	송인규	안종원	유선근	이광재	이승현
박영이	백승현	송재수	안종원	유선근	이광점	이아연
박영자	백영식	송주연	안종원	유선근	이광희	이안신
박영재	백영인	송주은	안종원	유선근	이광희	이안신
박영희	백은영	송지섭	안종원	유선근	이교선	이안신
박용구	백화숙	송정권	안종원	유선근	이교호	이안신
박용덕	변경희	송지호	안종원	유선근	이규하(김명석)	이안신
박용득	변성안	송해정	안종원	유선근	이규현	이안신
박용준	변순복	수진물프론	안종원	유선근	이근진	이안신
박유경	변준자	신경호	안종원	유선근	이기명	이안신
박윤경	변희자	신대방약국	안종원	유선근	이기현	이안신
박윤희	빈철원	신동천	안종원	유선근	이나미	이안신
박은숙	삼양화학공업(주)	신미해	안종원	유선근	이난희	이안신
박은영	삼창기(연(주)	신상	안종원	유선근	이남희	이안신
박은정	삼지현	신상철	안종원	유선근	이동원	이안신
박은주	서기혜	신상훈	안종원	유선근	이동원	이안신
박은주(박경진)	서경숙	신성애	안종원	유선근	이동원	이안신
박인숙	서광석	신수진	안종원	유선근	이두규	이안신
박인실	서란	신수희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인호	서명숙	신순옥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전선	서명해	신연식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정순	서민영	신영자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정익	서병기	신영자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정효	서애라	신은령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종익	서예슬	신인숙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종필	서원아	신재승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주현	서유나	신창임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준우	서은숙	신현경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지남	서은희	신현옥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지민	서전엔지니어링(주)	신현준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지윤	서정애	신혜란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진숙	서정희	신홍원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박진홍	서홍현	심귀련	안종원	유선근	이로한	이안신

이윤희	이현수	장시영	정인선	주가네	최유정	함금호
이은경	이현숙	장영준	정인선	주영화	최유진	함영엽
이은숙	이현정	장옥화(이상진)	정재룡	주신형	최윤동	함윤희
이은순	이현진	장원영	정재철	주식회사 영승	최윤지	함정인(유동훈 베드로)
이은영	이현호	장원중	정정아	주일권	최은규	허동환
이은자	이혜경	장재진	정주영	주춘자	최은진	허상근
이은정	이혜린(최익석 바오로)	장재표	정진모	주해숙	최의일	허지은
이은지	이혜용	장재현	정진희	주현정	최인복	허진
이은혜	이혜인	장정은	정찬영	주해숙	최재현	현상수
이은화	이홍	장지현	정찬익	지만호	최재훈	현순득
이은희	이화정	장진욱	정찬중	지만규	최점순	현해정(박현태 그레고리오)
이은미	이화경	장철진	정재용	지서인	최정수	호성희
이은소	이효상	장하윤	정철동	지승수	최정숙	홍강훈
이일수	이희옥	장현진	정철호	지영수	최정심	홍금숙
이일용	이명	장화정	정춘옥	지은이	최정호	홍기옥
이장섭	이경환	장취부	정춘자	진경란	최종태	홍길자
이재근(임형진)	인터동우솔루션	장희순	정태현	진능호	최종규	홍덕의
이재우	임경은	장희은	정태현	진수근	최치연	홍만표(김문숙)
이재원	임광재	장희선	정태현	진영문	최진규(최세훈 베드로)	홍문희
이재은	임규덕	전귀상	정태현	진장복	최창욱	홍성무
이재진	임난미	전대수	정태현	진정란	최철원	홍성옥
이재희(윤준식 인토니오)	임미경(김영선 요셉)	전명숙(최상근)	정태현	진현정	최준규	홍순일
이점숙	임미령	전명애	정태현(이다니엘)	차영순	최취선	홍순수
이정남	임미정	전영은	정효진	차영철	최한숙	홍양순
이정희	임민지	전병선	정희선	채영자	최현경	홍영준
이정식	임병구	전상묵	정희은	채석신	최해란	홍윤석
이정아	임성문	전성배	정희철	채점숙	최혜순	홍은혜
이정원	임성숙	전수정	조경(김은진 마리아)	채현주	최화수	최화수
이정은	임성연	전수진(오옥진)	조경(김현경 마카렐라)	채현연	최환주	최종숙
이정자	임성택(마성희 아드리아)	전연경	조계자	채현숙	탁성훈	최종숙(박은진 엘리사벳)
이정진	임소영(전윤오 니콜라오)	전지연	조광현	최지혜	파라바게트	최지혜
이정희	임순의	전종석	조금숙	최지현	필스캅생화학	최찬주
이재복	임순현	전진경	조금순	최하금	포계존달한마리	최현정
이재홍	임수택	전경민	조기인(송옥기)	최물전	표영애(표정하)	최금단
이중구	임여정	정기봉	조농진	최강문	표미자	최다연
이중주	임영수	정기성	조명선	최경아	표화순	최명선
이중범	임영희(김만일)	정남수	조명자	최고운술	황미영(이동현)	최한빈(황지현)
이중선	임유연	정동기	조미정	최나영	하승훈	최보승
이중현	임윤정	정동진	조민영	최덕자	하정숙	최상선
이중환	임은아	정동채	조선희	최득실	하정주	최성국
이중표	임은영	정말래	조선희(김재일 바오로)	최명애	하지연	최성희
이중현	임의자	정명진	조성원	최미숙	하지연	최인민
이주영	임이수	정미자	조성원	최민혜	한경원	최영자
이주희	임재숙	정민경	조성필	최범수	한관수	최우현
이주희	임재진	정민영	조성훈	최범진	한관표	최유식
이준희	임재갑	정병선	조세원	최범국	한명숙	최유숙
이준희	임정수	정상규	조수선	최범기	한민식	최인주
이준희	임정실	정성래	조순석	최범원	한상두	최충철
이준희	임정은	정세라	조순희	최범원	최보금(최재호)	최주영
이준희	임정희	정수경	조순희	최석환	한상옥	최진경
이지수	임준천	정숙필	조애경	최선호	한선형	최현숙
이지영	임혜순	정순아	조영만	최성용	한성현	최현숙
이지은	임혁진	정순영(정종석)	조영단	최성자	한성희	최현숙
이지후	임현숙	정순재	조예림	최성희	한소희	최현숙
이진희	임현주	정애경	조용국	최숙희	한수룡상	
이창길	임현빈	정여경	조원준	최숙분	한숙분	
이창민	임혜경	정영란	조은별	최순주	한순지	
이창석	임호순	정영애	조인숙	최인숙	한승식	
이창현	임화남	정영숙	조일관	최인규	한승진	
이창현(이상은 아녜스)	장경일	정영태	조일현	최안원	한영철(정영애)	
이재정	장금주	정용선	조재행	최영	한유경	
이재우	장덕분	정유경	조정숙	최영우	한유미	
이춘배	장로사	정유선(소수영 바오로)	조지연	최영자	한유선	
이춘영(정훈)	장명환	정은경	조진숙	최영희	한인숙	
이춘자	장미령	정은숙(함윤정)	조태식	최영희	한재관	
이춘현	장민정	정은숙	조현주	최옥순	한재희	
이태리안경점	장복남	정은숙	조현화	최옥희	한정애	
이태호	장석만	정이순	조희운	최옥순	한지현	
이태연	장선영	정익균	조희재	최우현(정혜경 비비안나)	한진이(에스앤주)	
이태호	장성희(임갑표)	정인경(강서영 베로니카)	좌혜경	최원길	한창섭	
이희수	장세환	정인경(강희연 요한)	주복춘	최원영	한창현	
이현경	장수영	정인상		최원혁	한혜정	



2013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결산 공고

2013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결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2013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세 입					
관	항	2013년 3차 추경 예산(A)	2013년 결산(B)	차액(A-B)	
				금액	달성율
총 계		6,694,470	6,682,935	11,535	99.8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88,151	84,291	3,860	95.6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2,400	1,791	609	74.6
보조금	보조금수입	112,000	97,000	15,000	86.6
전입금	전입금	3,091,037	3,112,803	-21,766	100.7
후원금	후원금 계	2,168,800	2,160,293	8,507	99.6
지정 후원금	소 계	1,375,900	1,406,100	-30,200	102.2
	한마음한몸	430,000	430,000	0	100.0
	아시아나	181,500	187,925	-6,425	103.5
	재해복구	1,000	60	940	6.0
	한가족	76,200	75,886	314	99.6
	선교200주년	28,000	23,426	4,574	83.7
	성모영보	3,200	2,400	800	75.0
	지정기부	134,000	269,203	-135,203	200.9
	공모사업 지원금	485,000	380,000	105,000	78.4
	공동모금회	37,000	37,200	-200	100.5
비지정 후원금	소 계	792,900	754,193	38,707	95.1
	바자회	1,600	4,874	-3,274	304.6
	한끼100원	67,200	68,571	-1,371	102.0
	개인후원	724,100	680,748	43,352	94.0
차입금	차입금	60,000	60,000	0	100.0
이월금	이월금	1,083,581	1,083,581	0	1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88,501	83,177	5,324	94.0

세출					
관	항	2013년 3차 추경 예산(A)	2013년 결 산(B)	차액(A-B)	
				금액	달성율
총 계		6,694,470	6,682,935	11,535	99.8
사무비	소 계	1,580,249	1,543,297	36,952	97.7
	인건비	948,621	943,008	5,614	99.4
	업무추진비	21,860	13,938	7,922	63.8
	관리운영비	609,768	586,352	23,416	96.2
재산 조성비	소 계	725,000	651,993	73,007	89.9
	시설비	725,000	651,993	73,007	89.9
사회복지 사업비	소 계	1,467,060	1,382,681	84,379	94.2
	본당사회사목 사업비	161,200	156,226	4,974	96.9
	분야별 특화사업	100,500	96,905	3,595	96.4
	지역사회 보호및예방	611,900	604,274	7,626	98.8
	직영수탁시설운 영지원	19,000	9,653	9,347	50.8
	등록단체 운영체계화	6,200	3,794	2,406	61.2
	사회복지 지원사업	544,500	489,521	54,979	89.9
	분야별역량 강화사업비	23,760	22,307	1,453	93.9
교육연구 사업비	소 계	217,401	203,671	13,730	93.7
	교육사업	69,706	60,827	8,879	87.3
	연구기획	32,294	30,694	1,600	95.0
	홍보출판	115,401	112,149	3,252	97.2
모금 사업비	소 계	93,659	92,853	806	99.1
	모금사업	72,216	71,623	593	99.2
	모금관리	21,443	21,230	213	99.0
자원봉사 센터	소 계	51,719	38,905	12,814	75.2
	자원봉사센터	51,719	38,905	12,814	75.2
재해복구 사업비	재해복구 사업비	10,000	-	10,000	0.0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27,319	27,282	37	99.9
잡지출	잡지출	500	16	484	3.2
상환금	소 계	145,200	143,662	1,538	98.9
	부채상환금	145,200	143,662	1,538	98.9
시설 전출금	소 계	1,459,712	1,459,712	0	100.0
	종합복지	313,300	313,300	0	100.0
	노인복지	319,177	319,177	0	100.0
	장애인 복지	250,515	250,515	0	100.0
	아동 복지	67,100	67,100	0	100.0
	노숙인,여성 및 기타	509,620	509,620	0	100.0
예비비	소 계	30,000	-	30,000	0.0
	예비비	30,000	-	30,000	0.0
이월금	차년도 이월금	886,650	1,138,862	-252,212	128.4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2013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 과목	금 액	구 분	지출 과목	금 액
지정후원금	한마음	430,000,000	사무비	사무비 및 운영비	550,126,929
	아시아나	187,925,466		자산취득비(비품)	174,180
	재해복구	60,000		사회복지분야별특화사업	96,665,840
	한가족 장학금	75,885,541	사업비	사회복지분야별역량강화사업	22,307,250
	선교200주년 장학금	23,426,000		사회복지연구기획사업비	30,693,865
	성모영보 장학금	2,400,000		사회복지지원사업	414,085,985
	지정 후원금	269,202,799		등록단체운영체계화사업비	3,594,300
	공동모금회 후원금	37,200,000		분당사회사목사업비	155,125,390
	공모사업 후원금	380,000,000		지역사회보호및예방	555,361,203
비지정후원금	바자회 후원금	4,873,981		직영수탁시설운영사업비	9,653,100
	한끼100원 후원금	68,571,140		교육사업비	46,581,360
	개인후원금	680,748,095		홍보출판사업비	112,149,466
계		2,160,293,022	계		2,124,003,552

생명대행진 2014(여성과 태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올바른 생명인식의 확산을 통해 죽음의 문화를 없애고 아름다운 생명존중 문화를 형성하는데 동참하고 기여하고자 본회 분야별협의회 소속 기관 종사자 159명이 지난 4월 13일(일) 프라자프rien합회가 주최하는 ‘생명대행진 2014(여성 과 태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4)”는 말씀을 주제로 본회와 산하시설 성가정임양원, 디딤자리, 마음자리에서 홍보부스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세월호 침몰참사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 및 성모의 밤 개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참사로 인해 지난 4월 23일부터 서울대교구 주최, 사회사목국 주관으로 “세월호 침몰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9일기도”와 추모메시지 벽을 명동대성당 성모동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어 9일기도의 마지막 날인 5월 19일에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과 PBC가 함께 주관하는 “세월호 침몰참사 애도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 등 관계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 CS노인통합사례관리 체제 구축사업 실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산하기관 및 종사자들이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측면의 전인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CS 강점 및 영성기반 노인통합사례관리 체제 구축사업(이하 CS노인통합사례관리)”를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 2014년에는 서울가톨릭노인복지관협의회 소속 4개 기관(동작, 금천, 성가정, 성동)을 대상으로 첫째, 법인 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직원 교육을 위한 CS노인통합사례관리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셋째, 직원 교육을 통한 CS-SICMA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넷째, CS노인통합사례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 다섯째, CS연구지원단 구성을 통한 본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생명존중 활동가 교육 및 발대식 실시

2014년 5월 29일(목) 9시 명동 가톨릭회관 205-3호에서 CS생명존중문화만들기 생명존중 활동가 교육 및 발대식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간담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자살예방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시하고, 지역 내 생명존중 활동가로서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83명이 이수했고, 교육 참석자 중 이 사업에 재원을 지원한 하나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생명존중 활동가들은 5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살예방 활동과 향후 생명존중 캠페인 등에 활동하게 됩니다.



### 2013 사회복지 우수시설 및 2014 표창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3년 사회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평가에서 사랑손보호작업장이 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급받은 인센티브(7,000천 원)는 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직원능력개발비(직원 해외연수)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성가정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현숙 관장), 서울시립 은혜로운집(김한식 원장),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나현숙)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 시설 선정 및 표창을 축하드리며 다른 시설들의 수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마음은 설렘입니다.  
하나 둘 날아드는 답장은 더없는 기쁨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받은 정다운 답장,  
따뜻한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나눔을 읽어 보실까?  
우리가 보내드린 소식이 마음에는 드셨을까?  
설렘과 기대감을 가득 담고,  
독자 여러분께 정성 어린  
편지를 보내 봅니다.



### 보낸 편지함

#### 〈2행시로 짓는 나눔의 의미〉

나눔의 2행시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눔의 의미를 2행시로 담아보는 것입니다.  
매달 다른 제목으로 나눔의 의미를 재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두의 단어에 나눔의 의미를 담아 맘껏 펼쳐 보세요.

▶ 당신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를  
두 글자에 담아 표현해 보세요.



### 받은 편지함

- 나눔의 전화 13기 교육 수료자로서 작은 기부자인 저에게 ‘나눔지’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씨앗입니다. 김계명
-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연출
- 꽃망울이 터지듯 소외된 우리 이웃에 웃음과 행복도 터질 수 있도록 카리타스 힘내세요!!! 화이팅!!! 박소연
-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선한 마음씨와 배려는 당신을 나눔의 행복으로 이어줄 거예요! 김미현

#### 참여방법

‘평화’라는 단어에 나눔의 의미를 담아 2행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들에게 가톨릭 사회적기업의 설립, 지원,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www.caritasworld.org) 등록업체인 (주)해밀라이트의 ‘해충퇴치램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4층 <나눔+> 담당자 앞
- 팩 스 02)2263-0853
- 홈페이지 www.caritasseoul.co.kr/bokji
- 응모기간 2014년 8월 31일까지

#### 〈지난 호 우수작 – 박소연〉

자신에게 소중한 그것을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 〈봄호 당첨자〉

- |                   |                   |
|-------------------|-------------------|
| 박소연(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 김계명(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 이연출(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 김미현(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 모아주신 정성,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카리타스 후원의 현장



### 리오더 및 리뉴얼 청바지 지원

리오더 및 리뉴얼에서 청바지 및 청하의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리오 남성정장바지 지원

새로운 후원업체인 리오에서 남성정장바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드레스보이스 남성의류 지원

드레스보이스에서 본회에 처음으로 물품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원해주신 남성의류들을 감사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 다산[마리안느] 임부복 지원

다산[마리안느]에서 연중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며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 (주)로젠택배 무적화물 지원

(주)로젠택배에서 1분기 무적화물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

신한카드 아름인 홈페이지(<http://arumin.shinhancard.com>)에서 신한  
카드 포인트 기부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부처를 검색해보세요.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고 이웃사랑도 실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기부안내

자동차보험(온라인제외)을 비교견적 후 보험에 가입하면 본회로 후원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2-727-2437

### 웨딩기부 안내

## 아름다운 혼인 하나 되는 나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실천으로 새 인생을 열어 보세요.

### 나눔에 참여하시게 되면

- 청첩장에 혼인 나눔 안내 문구 및 로고 지원
- 축의금 접수대에 혼인 나눔 안내 배너 지원
- 감사 선물 및 카드 증정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문의사항 : 02-727-2437



# 처음 약속 끝까지

약속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객님들이 보내 주시는 믿음을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신념을 지킨 결과 '지금 여력 비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조 회사의 모범은 평화상조입니다.

## 지금 여력 부문 1위

(주)평화드림/평화상조는 전체 상조 회사 중  
**지금 여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안정성과 신뢰도가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12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상조업 재무현황 분석')

# 1588-1774

[www.phfs.co.kr](http://www.phfs.co.kr)

상품가입 문의전화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고객 불입금 398억 원 (2014년 6월 30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359억 원 / 상조 관련 자산 398억 원 / 고객 환급 의무액 대비 적립률 111%

• (주)평화드림/평화상조는 2012년 12월 31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12월 결산 법인)

• 고객 불입금의 40%는 우리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2013년 3월 기준)

※ 평화상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관리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